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

8. 한국 사회의 변동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동과 관련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변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다문화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의 양상과 전망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

학습목표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변화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제시할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다음은 한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관련한 포스터이다. 각 포스터에 담겨 있는 인구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서 적어 보시오.



▶ 1965년 포스터



▶ 2009년 포스터

기본교제
확인하기

영역 / 과	제목	관련 내용
사회 / 1-2과	한국의 가족	핵가족, 1인 가구

Section
01

저출산과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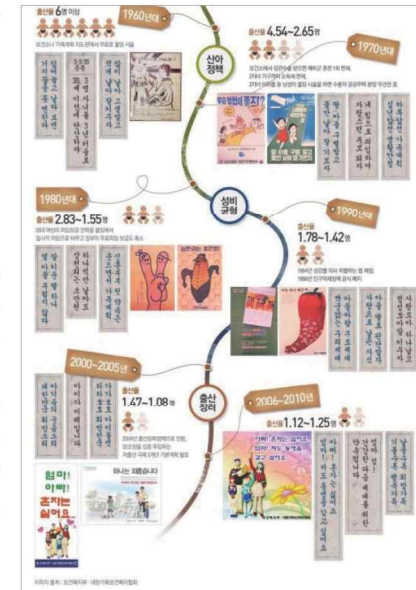
한국의 인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약 50,617,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에는 6명을 넘을 정도로 자녀를 많이 낳았다. 국토는 넓지 않은데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자 1960년대~1980년대에는 자녀를 적게 출산하자는 산아제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뒤편고 낳다 보면 저지꼴을 못 면한다.”와 같은 당시의 인구 정책 관련 포스터의 문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 여성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가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기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출산율이 크게 낮아졌다. 2015년 출산율 1.24명을 기록했다.

한편,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 영양·위생 환경의 개선 등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2015년 노인 인구 비율 13.1%, 노인 인구 수 약 663만 명인데, 2040년에는 전체 인구 중 32.5%, 약 1,6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 비율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인구가 점점 줄고 노년층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으로 인구의 구성이 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사회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이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다.



▶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 (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예상